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탐방객의 인식 및 요구도*

- 남산공원과 비슬산휴양림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윤** · 윤여창*** · 남효창****

Visitors' Perception and Needs of Self-Guided Environmental Education in Urban and Recreational Forests* - Cases of Namsan and Bisulsan Forests -

Sang-Yoon Kim** · Yeo-Chang Youn*** · Hyo-Chang Nam****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탐방객의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남산공원 및 비슬산휴양림 탐방객 231명을 대상으로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탐방객의 목적과 체류시간 등의 이용 행태, 자연관찰로의 소요시간에 관한 요구도,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내용 등은 공원, 휴양림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 반면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탐방객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공감하였으며, 자연체험 안내서에 대한 경험 수준은 공원, 휴양림의 형태와 상관없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두 공원휴양림의 탐방객 모두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년 1~2회", 약 20%는 "월 1회"의 빈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다수 탐방객들이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각 공원휴양림의 규모와 기능, 자원적 특성, 탐방객의 이용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탐방객들의 자연환경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eed for self-guided environmental education in urban and recreational forests, which are visited frequently by residents in two metropolitan areas in South Korea. Two series of face-to-face interviews were made in November 1998 with 231 visitors to Namsan Park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and Bisulsan recreational forest near Taegu City.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need for self-guided environmental education such as design of trails and contents of interpretation board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visitors including their motives and staying time, and the site characteristics while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need for other education facilities. More than 60% of visitors demanded the installment of self-guided environmental education facilities in urban and recreational forests while their experiences with nature study guides were quite limited. Most of forest visitors were willing to pay for self-guid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in forest. This survey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environmental

* 본 연구는 UNDP, 산림청 및 유한킴벌리의 연구비 지원으로 1998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수행된 과기부의 UNDP Project 「나무와 숲에 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ROK/98/005)의 기초조사 결과를 중 일부임.

**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 (School of Life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Dep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education programs and facilities to be installed in urban and recreational forests.

Key Words: Self-Guid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Needs Assessment, Namsan Park, Bisulsan recreational forest

I. 서 론

수도권 지역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산림에 대한 관심도를 문의한 결과 78.9%의 응답자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나무와 숲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곧 산림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로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이종락 · 김상윤, 2000). 이에 반해 산림휴양시설의 이용 여부, 산림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등 일반 국민의 실제적인 이용 실태 및 인식 수준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한국갤럽, 1997), 공원휴양림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연환경교육 및 산림문화교육의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교육에 관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며, 그 결과 국내 자연환경교육의 수준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 비교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및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탐방객 스스로 관련 매체를 이용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는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의 도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주로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전달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의 환경해설 효과에 대한 검증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황영현, 1996 ; 전경수, 1999), 프로그램의 실수요자인 탐방객들이 요구하는 환경해설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Kiely-Brocato(1980)는 환경해설 메시지가 특정한 부류의 대상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원이용과 관리에 대한 국립공원 탐방객의 태도를 조사하고 사분면 분석을 통하여 태도에 의한 탐방객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대상별로 효율적인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도쿄도(東京都)에 조성된 다카오(高尾) 국정

공원의 경우 매년 탐방객의 이용 특성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환경교육활동 지침서를 제작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주제별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東京都西部公園綠地事務所, 1998).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관련 연구로는 학교 현장에서의 지도식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 분석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윤여창 등, 1999 ; 김인호 등, 1999), 북한산국립공원 환경해설 프로그램 개발(국립공원협회, 1998), 국립공원 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 및 자연해설기법 개발(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산림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산림청, 2000), 자기안내식 환경해설판 디자인에 관한 연구(손종은 · 송형섭, 2000) 등이 수행된 바 있으나 실제로 공원 탐방객의 환경해설 요구도를 조사 · 분석하여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의 개발 지침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탐방객의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도심에 위치한 자연공원과 도심에서 떨어진 자연휴양림이 자원적 · 입지적 특성에 따라 탐방객의 속성, 이용 특성 및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 사례조사, 탐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과 사례지로서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대구 근교의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남산공원은 일제 강점과 근대화 과정에서 지형과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도시림으로서의 기

능을 확보하고 남산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되찾고자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현재의 남산공원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비슬산은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의 灵山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사찰과 약수터, 다양한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휴양적·문화적 이용 가치가 높은 자연휴양림이다.

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두 공원휴양림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협회(1998), 국립공원관리공단(1999), 김인호(1999) 등이 작성한 기존의 관련 보고서 및 논문의 설문 내용을 검토·참고하여 본 설문 의도에 적합한 설문안을 작성한 후 일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실시하여 용어나 내용상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하고 가급적 전문성을 배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8년 11월 21일(토)과 22일(일)에 남산공원 및 비슬산휴양림의 탐방객 가운데 231명을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일련의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들이 현장에서 탐방객들에게 설문을 직접 배부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남산공원과 비슬산휴양림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속성 및 공원이용 특성,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과 교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부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도시림과 자연휴양림의 형태에 따른 탐방객 간의 요구도 차이를 검토하였다. 유효 설문은 남산공원에서 100부, 비슬산휴양림에서 131부가 수집되어 총 231부를 본 논문의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설문 결과의 통계적 처리는 통계 패키지 STATISTICA의 기술통계, 분산분석, 분할표검정, t-검정과 Chi-Square검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속성 및 이용 특성

1)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속성

본 요구도 조사에 참여한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속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남산과 비슬산 모두 남녀 구성비가 6대 4 정도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이주희 등(1998)에 의한 경북지역의 휴양림 이용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여성탐방객 비율 36.9~42.4%와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비슬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33.0세로 남산공원 응답자의 평균 연령 30.4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인 남산공원의 경우 20대가 전체 탐방객의 절반 이상인 52.0%를 차지한 반면 비슬산휴양림에서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고른 연령 분포를 보이며 이는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산공원 응답자 가운데 91.8%가 서울, 비슬산의 경우는 86.3%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탐방객들이 인근 도시지역에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탐방객의 직업은 남산공원에서는 "학생"(4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회사원"(12.0%), "무직"(9.0%), "자영업"(7.0%), "공무원"(7.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남산공원 내에 식물원과 도서관 시설이 있어 "자연학습"이나 "도서관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반면 비슬산에서는 "학생"(23.7%)과 "회사원"(22.1%), "주부"(14.5%)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족중심의 탐방 형태를 보이는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visitors to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by socio-economic characters

		Namsan	Bisulsan
Sex(%)	Male	59.0	59.2
	Female	41.0	40.8
Age(%)	10-19	11.0	4.6
	20-29	52.0	34.4
	30-39	19.0	32.8
	40-49	5.0	20.6
	50-59	7.0	3.8
	over 60	6.0	3.1
Average Age		30.4	33.0
Residence(%)	Seoul or Taegu	91.8	86.3

2) 탐방객의 탐방목적

탐방목적에 있어서는 <Table 2>과 같이 남산공원과 비슬산휴양림 탐방객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산공원에서는 생태관찰이나 식물원 견학과 같은 “자연학습”(24.0%)을 주목적으로 하는 탐방객이 가장 많았으며, “휴식”(14.0%), “산책 및 등산”(12.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안중근의 사기념관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탐방하는 사례도 8.0%를 차지하였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책 및 등산”(58.0%)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원의 친목 도모”를 위해 방문한 경우가 16.8%, 그밖에 “쉼터”(2.3%), “자연경관 감상”(2.3%) 등 자연휴양림의 자원적 특성이 반영된 탐방목적들이 제시되었다.

3) 탐방객의 동반자 유형

탐방객들의 동반자 유형을 문의한 결과 남산공원에서는 48.9%의 응답자가 “친구”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혼자”(20.2%), “가족”(11.7%), “기타”(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가족”(46.2%), “친구”(30.8%), “회사동료”(8.5%), “친목단체”(6.2%) 등의 동반자 유형을 보였다.

남산공원은 거주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림이기 때문에 “친구” 또는 “혼자” 방문하여 자연학습활동이나 휴식·교제 등을 하는 반면 비슬산은 자원중심형의 휴양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가족”

또는 “단체”로 휴양적 이용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탐방객의 체류 시간

남산공원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0%의 설문 응답자가 “1~2 시간”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반나절”(34.0%), “하루 종일”(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슬산의 경우에는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반나절”(55.0%)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 시간”(22.1%), “1박 2일”(13.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원휴양림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0.275$, $df=4$, $p=0.004$), 도시림과 휴양림이 가지는 기능 및 성격상 도시림은 체력단련이나 산책 등 일상 여가활동의 일부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을 체류하는 반면, 자연휴양림은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특정한 목적(예: 가족 나들이, 조직원의 친목 도모 등)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을 체류하는 탐방객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5) 도시림 및 휴양림 방문 횟수

도시림 및 자연휴양림에 대한 연간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자연휴양림에 비해 접근이 용이한 도시림을 찾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산공원 탐방객이 비슬산휴양림 탐방객에 비해 도시림

<Table 2> The motivation of visitors in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Visiting motivation	Namsan		Bisulsan	
	N	%	N	%
Hiking and mountain climbing	12	12.0	76	58.0
Business (forest fire watch, park management volunteer)	10	10.0	-	-
Rest and play	14	14.0	15	11.5
Nature study	24	24.0	1	0.8
Visit to library and memorial hall	8	8.0	1	0.8
Forest aero-bath	-	-	3	2.3
Enjoying landscape	-	-	3	2.3
Extracurricular activity	2	2.0	-	-
Membership retreat	2	2.0	22	16.8
Others	5	5.0	3	2.3
No reply	23	23.0	7	5.3
Total	100	100.0	131	100.0

<Table 3> The frequency of visits to urban forests and Recreation forests (unit: visits/person/year)

	Visits to Urban Forests	Visits to Recreation Forests
Namsan	23.2	1.6
Bisulsan	8.1	4.2

방문빈도는 3배정도 높은 반면 자연휴양림 방문빈도는 약 1/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청(1998)에서 실시한 전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등산이나 기타 다른 휴양 목적으로 산림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방문 경험이 있는 국민은 65.9%, 평균 방문횟수는 년간 4.7회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와의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남산공원과 비슬산 탐방객의 경우 도시림 및 자연휴양림의 연간 방문횟수만도 각기 24.8회와 12.3회로 나타나 산악형 국립공원이나 기타 자연공원 등의 방문횟수를 고려해 볼 때 전국민 평균 방문 횟수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1)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 및 교재에 대한 수요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 및 교재에 대한

탐방객의 수요를 문의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탐방객의 요구도 간에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46~75%가 관련 시설 및 교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자연관찰로와 자연해설판에 대한 수요가 각각 75.3%와 66.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에 관한 물리적 시설이 미비한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로도 해석되며, 자연환경교육 시설이나 교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탐방객은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응답자의 5.0%와 6.9%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환경교육 교재 및 해설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 문제”, “부실한 해설판 및 교재 제작으로 인한 흥미 저하”,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 및 교재의 중요도에 대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1점,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임” 3점, “중요함” 4점, “매우 중요함”을 5점으로 설정하여 응답자들의 평가를 5점 척도로 문의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남산공원 및 비슬산휴양림 응답자 모두 자연환경교육을 위한 물리적 시설의 구비가 우선적으로

<Table 4> The needs for forest/environmental education facilities and guides in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multiple choice)

unit: %

	Nature trail	Natural interpretation board	Nature study booklet	Unnecessaries
Namsan	79.0	71.0	49.0	5.0
Bisulsan	72.5	62.6	42.8	6.9
Total	75.3	66.2	45.5	6.1

Chi-Square = 3.131, df = 3, p < 0.372

<Table 5> The importance of forest/environmental education facilities and guides evaluated by visitors to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Nature trail	Natural interpretation board	Nature study booklet	Unnecessaries
Namsan	79.0	71.0	49.0	5.0
Bisulsan	72.5	62.6	42.8	6.9
Total	75.3	66.2	45.5	6.1

<Table 6> The needs for contents of forest/environmental interpretation expressed by visitors to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Contents	Namsan		Bisulsan	
	Mean	S.D.	Mean	S.D.
Tree and flower	3.25	0.83	3.36	0.70
Soil type and geological features	2.66	0.89	2.78	0.87
Wildlife	3.11	0.72	3.07	0.90
Sound of nature	2.63	0.83	2.82	0.99
Water and aquatic ecosystem	3.23*	0.75	3.14*	0.91
Relationship of human and nature	3.03	0.87	2.94	1.06
According to the site characteristics	2.77	0.88	2.70	1.06

* p < 0.05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연관찰로, 자연해설판, 수목표찰, 자연체험 안내서의 순서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자연해설판의 환경해설 내용에 대한 탐방객의 요구도는 <Table 6>과 같이 조사되었다. 요구도 수치는 환경해설의 내용으로써 고려해야 할 중요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1점,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임” 3점, “중요함” 4점, “가장 중요함”을 5점으로 설정하여 5점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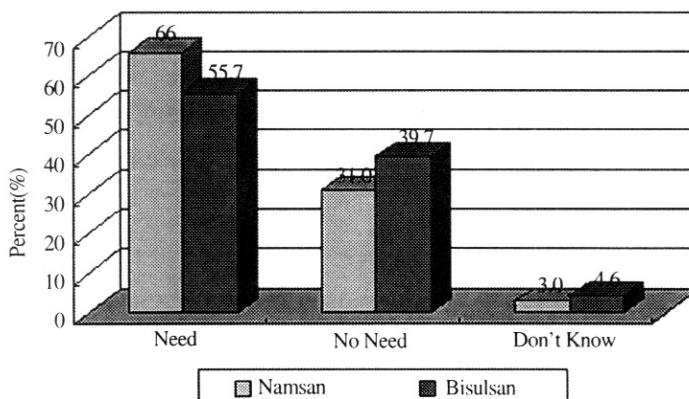
두 공원휴양림의 탐방객들 모두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의 소재 가운데 “나무와 꽃”, “물과 수생생태계”, “야생동물”, “인간과 자연”的 순서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도시림과 자

연휴양림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탐방객들이 요구하는 환경해설의 소재에 있어서는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해설 현장의 수자원의 특성에 따라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의 소재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연관찰로에 대한 요구도

탐방객들의 학습연령이나 체력, 자연체험 수준에 따라 자연관찰로의 난이도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는 <Fig. 1>과 같이 조사되었다.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가 남산공원에서는 66.0%, 비슬산의 경우에는 55.7%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남산공원이 31.0%, 비슬산이 39.7%로 나타났다. 결국 두 공원휴양림 모두 응답자의 60% 정



	Namsan	Bisulsan
Need	66.0	55.7
No Need	31.0	39.7
Don't Know	3.0	4.6
Total	100.0	100.0

<Fig. 1> The need for different difficulty level of nature trail in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도가 탐방객의 학습연령이나 체력, 자연체험 수준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자연관찰로가 설치·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연관찰로의 적정 소요시간에 관한 탐방객의 요구도는 공원, 휴양림의 형태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9.100$, $df=4$, $p<0.000$). 남산공원에서는 “30분~1시간 미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탐방객이 응답자 가운데 50.0%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1시간 30분 미만”(33.0%), “1시간 30분~2시간 미만”(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30분~2시간 미만”(30.8%), “30분~1시간 미만”(14.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림보다는 자연휴양림에 규모를 갖춘 자연관찰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연관찰로 설계시 각 공원휴양림의 전체적인 규모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자연해설판에 대한 요구도

자연해설판의 설치 간격에 대해 남산공원 응답자의 44.9%는 “100m”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50m”(33.7%), “150m”(11.2%), “200m”(9.2%)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36.7%의 탐방객이 “200m” 간격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00m”(30.5%), “150m”(20.3%), “50m”(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관찰로의 소요시간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도시림보다 자연휴양림에서의 해설판 설치 간격을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해설판에 들어갈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응답자의 29.3%가 “코스별로 탐방객의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25.3%), “중학교 수준”

(23.2%),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12.1%) 등의 순서로 답변하였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30.0%의 탐방객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중학교 수준”(20.8%), “코스별로 탐방객의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17.7%), “일반인 수준”(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해설판의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탐방 코스의 이용 특성 및 생태자원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자연체험 안내서에 대한 경험도

도시림 또는 자연휴양림에서의 자기학습식 자연체험 안내서의 경험 여부는 <Table 7>과 같이 조사되었다.

남산공원에서는 18.0%와 12.0%의 응답자가 각기 안내지도와 소개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제적인 체험안내서는 2.0%만이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는 16.2%와 9.2%의 탐방객이 안내지도와 소개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자연체험 안내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에 지나지 않아 두 공원휴양림 모두 응답자의 2/3 이상이 과거에 자연체험과 관련한 안내서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부 자연휴양림과 생태공원 등에서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관련 교재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을 시사하며, 특히 실제적인 체험안내서는 두 공원휴양림 모두 2% 이하의 응답자들만이 경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자기학습식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을 지적할 수 있다.

6)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Table 7> The experience of self-guided programs in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multiple choice)

unit: %

	Guide map	Information booklet	Self-guided program booklet	None
Namsan	18.0	12.0	2.0	69.0
Bisulsan	16.2	9.2	1.5	76.2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남산공원에서는 “년 1~2회” 정도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년 3~4회”(25.0%), “월 1회”(18.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과반수(51.6%)의 탐방객이 “년 1~2회”, 다음으로 “월 1회”(23.8%), “년 3~4회”(15.9%) 등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즉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년 1~2회”, 약 20%의 응답자들이 “월 1회”的 빈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시사하였다.

7) 프로그램 참가비에 대한 인식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별도의 참가비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탐방객의 의견은 <Fig. 2>와 같이 조사되었다.

남산공원에서는 58.0%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소 부정적이다”(19.0%), “잘 모르겠다”(11.0%), “전적으로 찬성한다”(7.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53.9%의 탐방객이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다소 부정적이다”(23.1%), “전적으로 찬성한다”(11.5%), “전적으로 반대한다”(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두 공원휴양림 모두 응답자의 2/3 정도는 참가비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 시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충분한 홍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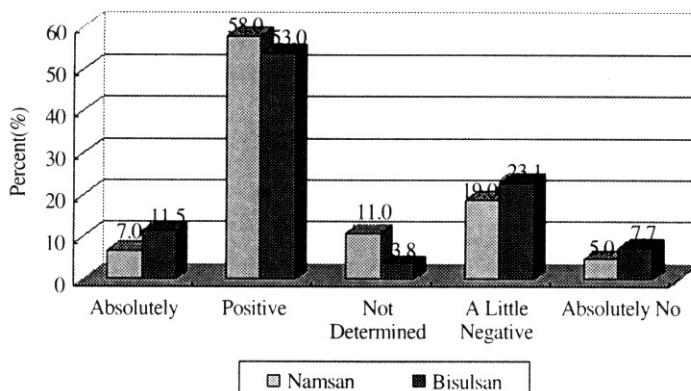
탐방객들의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참가비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의사액을 문의한 결과 남산공원에서는 44.8%의 응답자가 “500원~1000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500원 이하”(41.7%), “1000원~2000원”(13.5%)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슬산휴양림의 경우에는 47.8%의 탐방객이 “500원~1000원”, 다음으로 “1000원~2000원”(29.2%), “500원 이하”(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으로 보면 두 공원휴양림의 탐방객 모두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500원~1000원”이 전체 응답자의 약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연휴양림 탐방객의 경우 도시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의사액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공원, 휴양림의 형태에 따른 탐방객 속성의 차이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탐방객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시림과 자연휴양림 탐방객의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산공원과 비슬산휴양림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직접기입방식에 의한 설문을 통해 탐방객의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공원휴양림의 탐방 목적과 체류 시간



<Fig. 2> Visitors' willingness to pay for self-guided program in Namsan Park and Bisulsan Recreation Forest

	Namsan	Bisulsan
Absolutely	7.0	11.5
Positive	58.0	53.9
Not Determined	11.0	3.8
A Little Negative	19.0	23.1
Absolutely No	5.0	7.7
	100.0	100.0

등 탐방객의 이용 행태, 자연관찰로의 소요시간 및 자연환경교육 내용에 관한 요구도 등은 공원, 휴양림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들의 연령이나 자연체험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한 자연관찰로의 설치 및 운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공원휴양림의 탐방객 모두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년 1~2회”, 약 20%는 “월 1회”의 빈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로 표명하였다. 아울러 대다수 탐방객들은 자기학습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참가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에 관한 물리적 시설이 미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수준이 저조한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원휴양림의 규모와 기능, 자원적 특성 및 이용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자기학습식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은 지도식 해설에 비해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수요자들의 요구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치우친 일률적 프로그램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일부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생태공원 등을 통해 자기학습식 시설 및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탐방객들의 이용 특성, 자연체험에 대한 경험수준,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한 요구도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의 환경해설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탐방객의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특성화된 자기학습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기학습식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서 효율적으로 개발·운영 되기 위해서는 각 공원휴양림의 자원적·문화적 특성 및 이용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탐방객들의 자연환경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국립공원 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 및 자연해설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327pp.
- 국립공원협회. 1998. 북한산국립공원 환경해설 프로그램 개발. 190pp.
- 김인호·남상준·이영. 1999.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환경교육 제12권 제1호 : 294-310.
- 산림청. 1998. 자연휴양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부록 1. 전국민 이용조사와 수요예측). 176pp.
- 산림청. 2000. 산림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176pp.
- 손종은·송형섭. 2000. 자기안내식 환경해설판 디자인에 관한 연구. 산림휴양연구 제4권 제3호: 43-54.
- 윤여창 외 5인. 1999.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 현황과 ‘나무와 숲에 관한 지도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분석. 환경교육 제12권 제1호: 311-321.
- 이종락·김상윤. 2000. 도시민의 산림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관한 연구. 산림휴양연구 제4권 제1, 2호: 11-23.
- 이주희·이용범. 1998. 경북지역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칠보산, 청육산, 통고산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연구 제2권 제2, 3호: 109-126.
- 전경수. 1999. 환경해설판의 해설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장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산림휴양연구 제3권 제1, 2호: 29-38.
- 한국갤럽. 1997.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II) 보고서 -임정 30년 성과분석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123pp.
- 황영현. 1996. 산림휴양객을 대상으로 한 ‘스스로 알아보는 환경해설’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7pp.
- 東京都西部公園綠地事務所. 高尾ビジターセンター 平成9年 環境教育活動報告書. 50pp.
- Kiely-Brocato, Kathleen. 1980. An assessment of visitor attitudes toward resource use and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1(4): 29-36.